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강진에서 '올림픽 담금질'

코로나 속 안전한 훈련 장점
굵직한 3개 국제대회 앞두고
선수단 55명 이달말까지 훈련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강진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배드민턴 국가대표단은 강진 종합운동장 2개의 실내체육관에서 굵직한 세계대회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남녀 선수 40명과 임원 등 55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는 이달 말까지 도쿄올림픽과 2021 3개 국제대회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김충회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은 "고양시청 감독 시절 강진군에서의 전지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다"며 이번 국가대표 훈련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훈련이 가능한데다 최적의 운동환경을 갖춘 강진군이 훈련장소로 선택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 출신 김재현(19) 선수가 포함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강진군에서의 훈련을 환영한다"며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또한 모범적인 군민들의 방역수칙준수가 지켜지고 있는 지역인만큼 안전한 훈련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다.

강진군은 수시 환기, 경기장 방역초소 운영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속에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원활한 훈련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4일 이승옥 강진군수가 훈련장을 방문해 강진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조우철)에서 기증한 장미꽃을 선물하며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 24일 이승옥 강진군수가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훈련하고 있는 강진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강진군 특산품인 청자골 장미를 선수들에게 선물하고 격려했다. 〈강진군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김성연·이정윤 '올림픽 티켓 사냥'

다음달 6일 아시아선수권 출격
한국 선수간 치열한 경쟁 예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김성연과 이정윤이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금호연(남자), 배상일(여자)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녀 유도 대표팀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도선수권대회에 출격한다.

이번 대회는 김성연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성연을 비롯해 적지 않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자 57㎏급 김지수(21위·경북체육회), 63㎏급 조목희(29위·한국마사회), 한희주(35위·필룩스), 70㎏급 김성연(30위·광주도시철도공사)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올림픽 랭킹포인트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대회는 같은 체급 한국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정윤(78㎏급)은 같은 체급에서 윤현지(안산시청)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올림픽은 국제유도연맹(IJF) 올림픽랭킹 기준 체급별 상위 18위에 들거나 대륙별 올림픽랭킹 체급별 1위를 차지해야 출전할 수 있는데,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경쟁에서 밀리면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없다.

김성연

IJF는 체급별로 국가당 한 선수에게만 출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대한유도회는 5월 중 도쿄올림픽 국내 선발전을 치를 예정인데, 선발전 결과와 올림픽랭킹포인트를 합산해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을 계획이다.

한국은 남자 66㎏급과 100㎏ 이상급에서 두 명의 선수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남자 66㎏급에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안바울(남양주시청)이 5891점으로 올림픽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김임환(한국마사회)이 4279점을 획득해 10위에 랭크돼 있다.

남자 100㎏ 이상급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김민종(용인대)이 3908점으로 14위, 김성민(필룩스)이 3천564점으로 16위다.

이번 대회엔 금메달에 700점, 은메달에 490점, 동메달에 350점이 걸려있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해당 체급 네 명의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선수들은 지난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 도하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한 뒤 귀국 후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거쳤고, 다시 몸을 만들어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에 나섰다.

선수들은 귀국 후 다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일 출국한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컨디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며 "남자 대표팀은 강원도 양구에서 촌외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 중이고 여자대표팀은 진천선수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예림·이혜인 5·8위…베이징 청신호

두 선수 순위 합쳐 13 이하면 올림픽 쿼터 3장…27일 프리스케이팅 주목

한국 여자 피겨의 자존심 김예림(수리고)과 이해인(세화여고)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각각 5위와 8위 자리에 오르면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쿼터 2장 이상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두 선수는 24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글로브에서 열린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 피겨 여자 싱글은 이번 대회에서 김예림과 이해인의 순위를 합친 숫자가 13 이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쿼터 3장을 얻고, 14~28 이하면 2장을 확보한다.

현재 김예림과 이해인의 순위를 합친 숫자는 13으로, 프리스케이팅에서 현재 순위를 유지하면 3장의 쿼터를 얻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쇼트프로그램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림픽 쿼터 3장 획득 가능성이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두 선수가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현재 순위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두 명 이상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김예림은 완벽한 연기로 최고의 결과를 끌어냈다.

24일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글로브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혜림(수리고)이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Liberstraum)'에 맞춰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기술점수(TES) 40.07점, 예술점수(PCS) 33.56점, 총점 73.63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에 기록한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을 4.18점 경신한 점수다.

전체 31번째로 은반 위에 선 김예림은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Liberstraum)'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점프 과제인 기본 점수 10.10점의 트리플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 없이 처리하며 수행점수(GOE) 2.02점을 챙겼다.

엄청난 점프력과 두 손을 번쩍 들고 도는 타노 점프 연기력이 돋보였다.

김예림은 두 번째 점프 과제인 더블 악셀까지 깔끔하게 소화했다.

플라잉카멜스핀을 레벨4로 처리한 김예림은 10% 가산점이 주어지는 후반부에서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까지 클린 처리했다.

김예림은 스텝시퀀스(레벨3),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 싯스핀(레벨4)을 차례대로 깔끔하게 연기하며 연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GS칼텍스 최초 3관왕 vs 흥국생명 5번째 우승

오늘부터 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와 플레이오프의 승자 흥국생명이 26일부터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해 2020-2021시즌 우승팀을 가린다.

흥국생명은 24일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2승 1패로 챔피언결정전 출전 티켓을 손에 쥐었다.

2005년 프로 출범 후 코로나19 여파로 포스트시즌 없이 조기 종료된 2019-2020시즌을 제외하고 15차례 챔피언결정전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흥국생명이다.

2005-2006시즌, 2006-2007시즌, 2008-2009시즌, 2018-2019시즌을 제패한 흥국생명 선수들의 유니폼엔 별 4개가 박혔다.

GS칼텍스는 2007-2008시즌, 2013-2014시즌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우승에 도전한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의 바람대로 흥국생명은 플레이오프를 최종전까지 치러 체력 손실을 봤다. 다만, 플레이오프 3차전을 처음으로 3-0 완승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틀 간격으로 벌어지는 챔피언결정전의 1·2·5차전은 GS칼텍스의 홈인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3~4차전은 흥국생명의 안방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어우흥'(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예상을 깨고 GS칼텍스는 정규리그 직전에 열린 프로배구컵대회, 정규리그를 모두 제패했다.

이제 챔피언결정전마저 정상을 정복하면 최초로 3관왕(트레블)의 위업을 달성한다.

월드스타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은 학창 시절 폭력과 관련한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백에도 봄 배구 첫판에서 기업은행을 따돌려 저력을 뽐냈다.

국외 생활을 접고 11년 만에 흥국생명에 복귀한 김연경은 플레이오프 2차전 블로킹 도중 오른손 엄지를 다쳤지만, 붕대를 감고 출전한 3차전에서 23점을 터뜨려 '역시 김연경'이라는 찬사를 끌어냈다.

정규리그 후 약 일주일간 팀을 재정비한 GS칼텍스는 체력에서 흥국생명을 앞선다.

특히 레프트가 공수 모두 약했던 IBK기업은행과 달리 GS칼텍스에는 이소영과 강소휘라는 국가대표급의 걸출한 레프트가 있다.

두 선수와 키 206㎝의 V리그 최장신 공격수 메레타 러츠(등록명 러츠)를 앞세운 삼각 편대의 파워는 흥국생명을 압도한다.

게다가 GS칼텍스는 팀 득점·공격종합·오픈 1위, 팀 리시브·수비 1위에 오른 공수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더 박스, 모리타니안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5관	미나리, 리스타트
6관	고질라 VS. 콩
9관	와일드 마운틴 타임, 미션 파서블
7관 씨네커플	최면, 트웬티 해커
8관 씨네커플	미나리, 최면, 스파이의 아내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